

27년 만에 생애 첫 드라마 주연 오달수의 특별한 외출

tvN '나의 아저씨' 출연 결정 숨은 이야기

'천만 요정'이라 불리는 배우 오달수가 내년 초 방송하는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 주연을 맡는다. 드라마 주연은 1990년 연극무대에서 연기를 시작하고 27년 만이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시그널 등 '신의 캐스팅' 김원석 PD
영화 촬영현장까지 찾아가 출연 부탁
오달수 흥행파워, 안방도 흔들지 기대

배우 오달수가 27년 만에 드라마 주연을 맡았다. 1000만 관객을 기록한 역대 한국영화 13편 중 7편에 출연해 '천만요정'으로 불리며 대중에게 친숙한 배우이지만, 드라마와 인연을 맺지 않고 오직 영화에만 주력해온 탓에 TV로 향하는 그의 선택을 두고 기대와 함께 궁금증이 일고 있다.

오달수는 내년 초 방송하는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출연한다. 1990년 대학로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시작해 스크린으로 넘어와 30년 가까이 활동해온 그의 드라마 주연은 처음이다. 단역으로 잠깐 출연하거나 시트콤에 모습을 비치긴 했지만 드라마의 주요 배역을 맡기도 처음이다.

오달수는 '연중무휴' 일정을 소화할 만큼 쉼 없이 일하는 배우다. 연간 출연하는 영화가 2~3편에 이른다. 최근에도 영화 '조선명탐정 3' 촬영을 마치고 곧바로 또 다른 영화 '이웃사람' 촬영에 돌입했다.

더욱이 내년 초까지 영화 촬영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있어 드라마 제안을 도저히 수락할 수 없던 상황. 하지만 '나의 아저씨' 제작진의 적극적인 구애, 작품이 가진 따뜻한 감성에 마음을 열었다.

'나의 아저씨'를 연출하는 김원석 PD는 드라마를 기획할 때부터 극을 이끄는 삼형제 중 맏형으로 오달수를 점찍어 일찌감치 출연 제안을 했다. 하지만 오달수는 미리 잡아둔 영화 촬영 탓에 도저히 일정을 조정할 수 없었다. 오달수 측은 제작진에 출연이 어렵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달했지만 김 PD는 포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내부에서도 오달수가 아닌 다른 배우를 찾아보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김원석 PD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오달수의 영화 촬영현장에까지 직접 찾아가 출연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 제작 관계자는 19일 "오달수가 배역에 가장 어울린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도저히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서로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며 "연출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보이고, 오달수도 작품이 담아내는 이야기와 메시지에 동의해 함께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원석 PD는 앞서 연출한 드라마에서 '최적의 캐스팅'으로 작품의 성공을 이끌어왔다. 배우 이성민과 임시완을 발탁한 드라마 '미생'에 이어 김혜수와 조진웅, 이제훈을 앞세워 감성을 더한 스릴러 '시그널'을 만들어 또 한 번 성공을 맛봤다. 시청자의 마음을 흔드는 탁월한 감각, 동시대 시청자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연출 실력은 김 PD의 최대 강점으로 통한다.

오달수 역시 김원석 PD와 직접적인 인연은 없지만 그가 연출한 드라마들을 통해 믿음을 갖고 있던 차에 '나의 아저씨' 제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화에 주력하는 가운데 드라마로도 활동 범위를 넓히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던 상태이기도 했다.

'나의 아저씨'는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삼형제와, 이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한 여자가 서로를 마주보며 마음을 치유해가는 이야기다. 오달수는 이선균, 송새벽과 더불어 '삼형제'를 이룬다. 여주인공은 가수 아이유가 맡았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김혜수의 또 다른 도전

새 영화 '국가 부도의 날' 촬영 돌입
"시나리오 보고 화가나 잠 못 이뤘다"



영화 '미옥'의 김혜수

배우 김혜수가 '미옥'의 아쉬움을 딛고 IMF사태를 극복하는 이들의 이야기로 나선다. 전력투구한 영화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그에 머물지 않고 새 영화 촬영을 12월부터 시작하며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김혜수의 영화 '미옥'(감독 이안규·제작 영화사소중한)은 9일 개봉해 상영 2주째를 지났지만 누적관객은 23만여명(영화진흥위원회)에 그치고 있다. 박스오피스 순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회생의 기회를 잡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 김혜수의 액션 느와르 도전으로 시선을 끌었지만 관객의 평가는 냉담하게 나타났다.

김혜수도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결과다. 더욱이 최근 2~3년 동안 주연한 '차이나타운'과 '굿바이 싱글' 등 영화는 물론이고 tvN 드라마 '시그널'까지 빠짐없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여배우로서 돋보이는 성적을 써가던 입장이라 이번 결과에 안타까움은 더 크다.

하지만 김혜수는 다시 한 걸음 내디딘다. 당장 12월부터 새 영화 '국가 부도의 날'(감독 최국희·제작 영화사집) 촬영을 시작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내놓는다. 한동안 다소 거친 장르로 관객을 찾아갔다면 이번에는 이야기가 중심인 영화다. '국가 부도의 날'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국제통화기금) 협상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그린다. 당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벌인 금 모으기 운동 등 실화도 담아낸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소재삼은 영화는 있었지만 IMF 협상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작품은 '국가 부도의 날'이 처음이다. 김혜수는 "시나리오를 보고 화가 나서 잠을 못 잤다"며 "미처 몰랐던 당시 이야기들을 접하고 나서 가슴이 정말 답답했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라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슈퍼주니어 잇단 악재…'슈퍼쇼 7' 흥행 위기

최시원 '반려견 사고' 논란 이어
강인 여자친구 폭행 또 사고쳐
팬들 "강인 나가라" 거센 비난



슈퍼주니어가 멤버들의 연이은 사건·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6일 열린 8집 '블랙슈트' 쇼케이스에 6인조로 나선 모습이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악재의 연속이다. 그룹 슈퍼주니어가 이번엔 멤버 강인의 폭행 사건으로 또 한번 타격을 받고 있다. 이달 초 8집 '플레이'로 컴백하기 직전 최시원이 '반려견 사고' 논란으로 비난을 받은 데 이어 활동 막바지 강인이 술에 취해 여성을 폭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슈퍼주니어는 올해 데뷔 12주년을 맞아 데뷔기념일에 컴백하는 등 야심 차게 활동을 시작했지만, 연이은 치명타를 입으며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최근 앨범 판매량 20만장을 넘은 성과도 빛이 바랬다.

17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강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자신이 강인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했고, 강인은 "알고 지낸 사이"라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팬들은 물론 해외 팬들까지 "그룹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멤버" "멤버들 발목 잡는 것도 정도껏 해라"라는 비난을 퍼부었고, "팀에서 자진 탈퇴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인의 '음주 사고'는 이번이 네 번째다. 2009년 9월 술을 마시고 행인과 싸우다 경찰에 입건됐고, 한 달 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다. 또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도주해 1심 재판에서 7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잇단 음주 사고로 "자숙하겠다"며 이번 앨범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다가 결국 또 사고를 친 것이다.

강인의 사고 여파는 당장 20일과 21일 예정된 홈쇼핑 출연과 콘서트 입장권 예매에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슈퍼주니어는 20일 밤 10시45분부터 1시간 동안 CJ홈쇼핑에 출연한다. 이들은 앞서 컴백 기자회견에서 앨범 20만장을 판매하면 검정 옷을 입고 홈쇼핑에 출연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이돌 스타가 홈쇼핑에 출연한 적도 없고, 멤버들의 개인기와 입담 등으로 '완판'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또 21일 오후 8시에는 2년 만에 여는 콘서트 '슈퍼쇼 7' 입장권 예매를 시작하지만 전 석 매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법무부에 일일이 자문…실제같은 '감빵생활'

사실적 연출 위해 꼼꼼히 확인 거쳐
신원호 PD "세트 부술 생각하면 눈물"

22일 첫 방송하는 tvN 새 수목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완성도를 위해 법무부에 자문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감옥에서 생활하는 재소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어서 제작진은 소품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사실적인 연출'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제작진은 감옥 내부시설과 비품을 실제처럼 표현하기 위해 법무부에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볼펜 등 재소자들이 사용하거나 이들에게 보급되는 물품 하나에도 리얼리티를 살리고, 또 잘못된 연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촬영 전 검증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우정 작가를 필두로 정보훈 작가가 대본을 완성하면, 그 내용을 보고 스태프들이 소품을 준비한다. 촬영 중에도 확신이 서지 않는 소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법무부 관계자에게 도움을 청한다.

드라마의 절반 이상이 등장하는 감옥 연출에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제작진은 경기도 의정부에 실제 감옥과 흡사하게 세트를 지어 촬영하고 있다. 바닥에는 온돌을 깔았고, CCTV도 실제로 설치했다. 연출자인 신원호 PD가 "세트를 부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세트 짓기에 공을 들였다.

신 PD는 "감옥은 특수한 공간이어서 소품 활용이 제한적이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시대적 배경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에는 사실에 기반하는 소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숫자뉴스

44주

MBC '일밤-복면가왕'이 방송을 재개하기까지 걸린 기간이다. 9월 4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경영진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 등을 이유로 돌입했던 총파업이 15일 종료되면서 '복면가왕'은 11주 만인 19일 정상 방송을 시작했다.

#해시태그 컷



마동석·오승환 '핵주먹의 만남'

의외의 만남이다. 배우 마동석과 미국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오승환이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마동석은 "우리 오승환 선수 늘 응원합니다"라는 글로 친분을 과시했다. 탄탄한 근육을 자랑하는 두 남자가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심지어 마동석의 주먹 크기는 오승환 얼굴과 비슷하다. 2013년부터 친분을 다져온 두 사람의 우정에 팬들은 "핵주먹의 만남"이라고 관심을 드러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스포츠동아 #마동석 #오승환 #강한 남자들 #핵주먹 #의외의 절친

김원겸의 음담잡담

베트남 케이팝 열풍에도 한국가수들 못가는 이유

베트남이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국민 평균연령이 30세도 채 안되는 '젊은 국가'여서 매력적인 소비시장으로 꼽힌다. 콘텐츠기업 CJ E&M도 음악시상식 'MAMA'의 올해 행사를 홍콩, 일본과 더불어 베트남(11월25일)에서 열기로 할 만큼 신 한류시장으로 주목한다.

실제 베트남은 한류에 빠져 있다. 청소년들은 케이팝 커버댄스로 시간을 보내고, 한국어 배우기가 '열풍' 수준에 이르면서 베트남 교육부는 최근 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중국어·일본어에 이어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8일 호치민에서 열린 '2017 한국 베트남 우정 콘서트'는 예매시작 3분 만에 3000석 전 석이 매진됐다.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도 높다. 최근 통계청은 국내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며느리 중 베트남 국적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발표하며 "베트남에서의 한류열풍도 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1일 호치민에서 열린 '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영상축전을 통해 "한국 국민은 베트남의 자연과 문화, 음식, 관광을 즐기고, 베트남 국민은 한국의 한류 음악, 드라마, 패션에 열광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베트남의 뜨거운 '수요'에 비춰 케이팝 가수들의 '공급'은 크지 않다고 현지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은 말한다. 경제성이 낮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대졸 초임이 1000만동(약 50만원)일 만큼 소득수준이 낮아, 개별 가수의 콘서트 티켓값은 일반석 기준 1만원이 적정선이라고 한다. 장당 20만원에 달하는 싱가포르, 일본에 비하면 턱 없이 낮다. 케이팝 가수들이 베트남에서 공연할 경우 받게 될 개런티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 케이팝 가수들 입장에선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선뜻 나서기가 망설여진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수가 이미 2015년 4000개가 넘어섰다. 한류와 기업이 베트남에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을 것이다.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gyummy@donga.com

편집 | 좌혜경·유진한 기자